

# 생명을 위하여

발행일 2020년 9월 7일 (통권 21호)  
 발행인 염수정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전화 02-727-2350~4 팩스 02-727-2355 이메일 vitavia@hanmail.net  
 홈페이지 www.forlife.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vitavia.seoul  
 디자인 쉼더셀



## 낙태 합법화 이후 생명수호(Pro-life) 진영의 과제

박정우 후고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작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까지 일정 기간 낙태를 허용하는 새로운 법률로 대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모자보건법상 일부 허용되던 낙태 범위가 새로운 대체 입법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명수호 진영은 크게 세 가지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절차상 낙태 시행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입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이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1982년 낙태 시술을 받으려면 상담 후 24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시술 전에 태아 상태에 대한 정보와 낙태의 위험성에 관해 설명을 들어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낙태 시술소는 기록 및 보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1992년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한” 이 규정들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 남편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낙태하려는 여성은 사전 의무 상담을 통해 낙태의 심리적, 육체적 후유증을 포함하여 그 실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대체 입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제도적 혜택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여성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의료인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도 물론 보장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이 낙태 대신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 그럴만한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실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낙태가 여성에게 해롭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원한다면 여성이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인 지원 마련에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양특별법에서는 미혼모가 비밀리에 출산하고 입양시킬 수 없으므로

낙태나 영아유기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익명출산법’을 제정해서 미혼모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익명이나 가명으로 출산하고 입양시키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 양육비 이행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강화해서 미혼모가 출산하여 혼자 직접 아기를 키우더라도 친부가 양육 책임을 회피할 때 국가로부터 먼저 양육비를 지원받고 국가가 친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친부가 양육 책임을 끝내 이행하지 않을 때 징벌적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미혼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기혼여성의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정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주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아이에 대해 다양한 수당과 세금 혜택,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의 효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더 이익이고 행복하다는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성교육을 포함하는 생명존중교육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생명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1960년대 경제성장을 위해 산아제한을 국가시책으로 삼으며 피임을 장려하고 낙태를 방임했던 원죄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와 함께 낙태 합법화, 자살과 폭력이 만연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삼고 반인륜적인 폭력을 가한 디지털성범죄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이런 생명운동의 방향을 ‘태아살리기 프로젝트 2021’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2021년 비록 법은 낙태를 허용하게 되더라도, 양심의 법은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 태아살리기 프로젝트2021 포스터



# 대학생 생명운동가들과 함께 걷는 길

김승주 베드로 신부 | 프로라이프대학생회 지도교수, 꽃동네대학교 교목처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백만 명에 육박하고 지구촌 빈곤이 급속화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인류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방역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무시하여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갖고 수천 명이 뒤섞여 파티를 즐기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인해 바이러스 대량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쾌락과 만족만을 앞세우고 책임과 희생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책임과 의무 없이 자기결정권만 최우선시 되는 뒤틀린 자유의 개념이 코로나19 확산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각각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개는 개처럼 만드시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곰은 곰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처럼 만드시되 하느님의 모상으로, 하느님처럼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이 하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만물을 돌보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람을 영광스럽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한 몸 돌보기도 힘든 게 우리 인간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고 오히려 만물을 파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 문제, 내 행복, 내 미래, 온통 내 생각밖에 없는 이기주의,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내 인생 네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너를 행복하게 해 줄 사람 너밖에 없다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욕망을 추구해야 네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죽음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상태에선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매해 생명 주간을 정해 각종 행사를 펼쳐오고 2012년부터 매주 소모임 형태의 '생명누리'라는 단체를 운영해 오던 꽃동네대학교 열여섯 명의 학생들은 2016년 7월 2일, 서울광장 생명대행진 2016 코리아 행사장에서 전국의 선배 생명운동가 2천여 명 앞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생명운동의 방법을 찾아 행하자'는 취지로 발대한 프로라이프 대학생회는 주교회의의 생명운동 4대 지침인 기도, 교육, 홍보, 참여운동을 토대로 네 분과를 만들어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 **기도운동** - 생명운동은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며, 그러기에 생명운동은 기도운동입니다. 기도누리에 소속된 대학생들은 모임 내에서 기도지향을 관리하고 대학생 생명미사, 고리기도를 주관하며, 회원들의 수정일 축하식 및 입단식, 선서식의 업무를 주관합니다.
- ◆ **교육운동** - 오늘날 자행되는 반생명적 이슈들에 대한 파악 없이는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없고 공부하지 않고는 논리를 펼 수 없기에 교육파트를 맡은 배움누리는 모임 내에서 생명, 의료윤리를 교육하고 매주 생명워크숍의 주제를 선정하며, 대중문화를 분석하여 담론화하고 생명컨퍼런스와 생명멘토링을 주관합니다.

◆ **홍보운동** - 대중문화를 잠식하는 죽음의 문화에 맞서고 생명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홍보누리에서는 생명뮤지컬과 생명영화 및 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생명컨텐츠 개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생명SNS를 운영합니다.

◆ **참여운동** - 생명운동의 대국민 참여를 호소하는 참여누리에서는 각종 생명캠페인을 주관하고 교회 내 생명운동 동참, 각 대학의 생명문화주간 행사를 진행하며 타 대학 연계 업무를 주관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2012년 4:4가 되어 낙태죄가 합헌이라 결정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인간이면 누구나 신체적 조건이나 발달 상태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생명 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2010헌바402)』"의 내용을 외우고 되뇌면서 생명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현재의 판결도 2012년과 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유행에 가장 민감한 대학생들도 '머리스타일이나 옷입는 유행이 달라질지언정 내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자연법적 사실, 태아가 생명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2년의 판결이 2019년에 달라져 태아도 생명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유행을 타는 이 나라의 결정에, 태아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결정에 대학생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점을 잘라 그 이전은 세포 덩어리, 그 이후는 생명... 누구도 그걸 정할 수 없음을 알기에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낙태를 완전 자유화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 대학생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투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이 아닌 사랑으로 싸울 것입니다.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 프라이프 대학생회의 활동 모습

## Q&A

**Q.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접 성당에 나가지 않더라도 참여하거나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모바일에 있고, 유튜브에서도 많은데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마저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부족한가 하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묵주기도와 기도책을 보며 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A. 당연히 괜찮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외적인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하느님께 마음을 모으고 정성껏 예배드릴 수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하느님께서 기꺼이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내는 큰돈보다 자신의 전부를 바친 가난한 과부의 동전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전자기기에 익숙한 세대들이 그것을 통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좋은 일이고요. 덧붙이자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많은데, 우리의 기도가 나눔과 선행으로 이어진다면 더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생명, 현장



▲ 신자들에게 배부되는 캠페인 수첩

## 문정2동성당, 9월부터 전 신자 대상으로 환경캠페인 실시

문정2동성당에서는 9월 1일부터 본당 전 신자를 대상으로 '지구를 위해 하다 -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의 실천'이란 주제로 환경캠페인을 실시한다. 하느님께 선물로 받은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잘 지키고 깨끗하게 가꾸어, 깨끗한 환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독려하는 이번 캠페인은 9월 1일부터 매월 수첩에 적힌 실천 활동을 수행하고 표시하면 된다.



## 알림

### 미사

#### ■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 일시: 2020.9.21(월) 11시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대상: 천주교 신자 누구나
- 문의: 생명위원회 사무국 ☎ 02-727-2353



### 교육



#### ■ ZOOM으로 나누는 새 삶을 향한 참생명학교 심화과정 1기

참생명학교 심화과정 1기가 기초과정 수료자 중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교육기간은 9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10월 5일 휴강)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씩, ZOOM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진행됩니다.

- 커리큘럼: 9/14 (1주) 성/생명/사랑에 대한 교회의 관점과 젠더 문제
- 9/21 (2주) 자녀 성교육
- 9/29 (3주) 피임과 자연출산조절
- 10/12 (4주) 보조생식술과 나프록시민법
- 10/19 (5주) 유전자 진단과 낙태
- 10/26 (6주) 죽음과 고통의 의미 그리고 안락사
- 11/2 (7주) 연명의료와 생의 말기1
- 11/9 (8주) 연명의료와 생의 말기2
- 11/16 (9주) 뇌사와 장기기증
- 11/23 (10주) 한국사회와 생명윤리

※ ZOOM(줌)은 기본적인 채팅부터 그룹회의, 투표, 화면 공유, 원격제어 요청까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입니다.

### 교육



#### ■ ZOOM으로 나누는 "어른들을 위한 성, 생명, 사랑이야기"

생명위원회에서는 1975년부터 계속되어온 행복한가정운동의 일환으로 자연주기법(NFP)을 실천·교육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주기법(NFP) 기초과정 교육 7기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교육명: 슬기로운 부부생활을 위한 자연주기법(NFP) 기초과정 교육 7기
- 일시: 2020. 10. 15~12. 17(10주, 매주 목) 저녁 8시~10시 \*모집 마감: 9월 25일(금)
- \*오프라인 모임: - 오리엔테이션: 10. 8(목), 저녁 7시, 가톨릭회관 1층 대강당
- 수료식: 12. 17(목), 저녁 7시, 교구청 501호
- 강의방식: Zoom(화상회의)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강의
- 대상: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모든 분들 \*부부 50살 이내(선착순 모집), 개인도 신청 가능
- 교육비: 부부 5만원, 개인 3만원(교재포함)
- 접수/문의: 생명위원회 사무국 ☎ 02-727-2351

### 공모



#### ■ <언플랜드>와 함께 하는 제5회 생명수호 체험수기 공모전

<언플랜드>를 읽고 느낀 점을 포함하여 죽음의 문화를 거슬러 생명을 지켜낸 생명수호 체험을 수필형식으로 적어 보내주세요.

- 접수기간: 2020.8.17(월) ~ 9.11(금)
- 대상: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수호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A4 2~4매)
- 심사결과 발표: 2020.10.5(월) 오전 10시,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 시상: 대상 1명(200만원), 우수상 2명(각 100만원), 장려상 5명 내외(각 30만원)
- 보내실 곳: [우편, 방문 접수]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사무국 (우편 접수시 9월 11일 우체국 소인까지 가능), [이메일 접수] vitavia@hanmail.net
- 문의: 생명위원회 사무국 ☎ 02-727-2354